

시연(施連) 칼럼

# 좌의정 문경공文景公 進軫 조선에서 더 빛나다



글 권오신 (安東權氏 左尹公派會長, 칼럼니스트)

한글을 창제하고 찬란한 세종世宗시대를 열기까지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아인들을 귀화시켜 국경지역을 안정 안정시키는 등 황희黃禧를 앞선 개혁 행정가였던 좌의정 문경공(文景公, 諱 進軫)의 부음하음을 전해들은 조선의 4대 임금 세종은 사흘 동안이나 조회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세종실록에서)

좌의정左議政 문경공文景公 諱 進軫(1357-1435)은 고려 공민왕恭僖王 6년(1357, 丁酉)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좌의정 문경공文景公의 셋째 아들로 안동에서 태어나 공공의 나이 21살에 이거기로 이름난 고려 문과에 급제 했다.

공민왕 12년에 태어난 황희(黃喜 1363-1452)와 비슷한 시대를 살면서 조선 육조六曹 수장首長을 지냈다. 명상 황희보다 수壽만 길었다면 영의정에 올랐을 분이다.

자자는 희산希山, 호는 독수와獨樹窩, 경재敬齋를 같이 했다.

고려 우왕禑王 3년(1377) 21살 때 문과에 급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등 문경공의 삼형제(여도興道, 진軫, 초軫)가 문과에 급제해서 고려의 사대부士大夫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우왕(禑王)으로부터 나라를 이끌 영재로 사랑을 받았던 문경공이었으나 벼슬길 초입에 큰 어려움을 만나 안동으로 낙향하게 된다. 당시 절대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권신權臣 염흥방鹽興邦이 자신의 세력을 더욱 굳히기위한 방안으로 질녀와의 혼인을 추진하자 문경공은 염흥방의 정략결혼을 거절, 스스로 관직을 버리고 안동으로 낙향했다.

“관세 가문과 혼통通婚함은 나의 소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문경공의 폐기가 염흥방이 크게 노하고 해치려하자 스스로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와 산림山林, 지금의 안동 송전으로 추정)에 은거隱居해 버렸다.

려말麗末 권력을 쫓던 양반가는 물

론 고려 32대 우왕(禑王, 재위기간 1374-1388)의 문하시중(李成桂)이 학문을 닦는 문경공을 보고 크게 감동하는 등 고려 조정에서 신성한 충격이 되었다고 한다.

문경공은 벼슬을 던진 3년여 만에 우왕의 배려로 경상남도 의창義昌 고을의 현령縣令으로 관직에 다시 나가 왜구倭寇의 침범侵犯을 막았다.

또 경남 의창 고을 치세治世를 지켜 본 문하시중門下侍中 이성계李成桂는 “전주는 나의 고향인데 사람이 많고 일이 많으니 능력 있는 인재에게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전주 판관判官으로 추천, 자리를 옮겼다.

민생을 잘 살피고 제도를 혁신한 치적이 중앙 정부에 알려지면서 성석린(成石麟, 1338-1423,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이자 서예가, 조선개국 공신)이 서경西京으로 출진할 때엔 경령으로 뽑았다. 성석린과의 인연으로 인해 훗날 조선에서 다시 관직을 받게 되는 등 경상도와 강원도 관찰사로 나가는 등 된다.

문경공은 역성 혁명이 일어나자 만형(경산공慶山公 國毅)과 아우(판사公判事 公 初軫), 매부(백죽당柏竹堂 배상지裴尙志, 두문동 72현)가 고려의 절신節臣으로 남기 위해서 예전 대주리로 들어가서 그날로 전주 판관 자리를 던지고 안동으로 내려와 은거 생활에 들어갔다. 문경공 선조 역시 전조(高麗)에 대한 수절신守節臣이 될 것인가.

개풍군 광덕산 두문동에서 쫓겨난 황희가 세종의 만어를 문하에 들어간 것처럼 그동안 쌓은 학문을 백성들을 위해 쓸 것인가를 두고 몇 년을 고민한 흔적이 행장 곳곳에서 나타나 있다.

문경공 선조는 태조 7년(1398) 왜구의 대거 침입으로 남서해안 방어진防禦線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해, 전주 판관으로 추천 했던 태조 이성계의 토벌군을 이끌었던 조전원수助戰元帥 성석린이 “백성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끈질긴 설득과 명분에 밀려 왜구 토벌군討伐軍의 직책을 맡아 입조入朝했다.

이때가 42살이었다. 벼슬길에 다시 나간 문경공 선조는 경상도와 강원도 관찰사로 중용됐다.

태조 7년(1407) 51살이던 해엔 형조 판서刑判書로 내직에 들어오게 되며 흥분기거사徵問起居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는 평안도 관찰사관 직첩이 추가되기도 했었다.

송고松阜 선조가 성군관成均館 대사성大成과 함경도 북백(北白, 관찰사

觀察使)등을 제수 받고 나가지 아니한 시기보다 몇 년 후로 추정된다.

세종 4년(1422) 66세에 중군도총제中軍都總制로서 정조사正朝使의 임무를 갖고 두 번째 명명에 다녀오던 해엔 관한성부사判漢城府使와 형조판서刑判書, 찬성시贊成事를 겸직하게 되는 등 실직에 다시 나가게 된다.

세종 8년(1426)엔 74살이던 해에 찬성贊成에, 세종 12년엔 이조판서吏判書에, 75살(1431)에 우의정에 오르셨다. 그 해에 경연經筵 예문藝文 춘추관春秋館事와 세자사부世子師傅를 겸하는 좌의정에 제수 됐으며 79살에 하세下世하셨다.

### 세종대왕이 직접 빈소 찾아 조문

세종은 조회를 자주 거르는 문경공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卿은 돌아감을 금히 말라. 나라위해 마음과 몸 다 바쳐 임금님 이목耳目 같은 신하였네. 차국治國하고 대사大事를 화전化轉하고 만물을 위육育育했네. 청신淸愼해 남의 뒤에 서고 은화한 가운데 광학弘學하다. 사조四朝의 정승이요, 일대一代의 주석柱石(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리)이로다.”(세종실록에서)

“경卿은 돌아감을 금히 말라. 나라위해 마음과 몸 다 바쳐 임금님 이목耳目 같은 신하였네. 차국治國하고 대사大事를 화전化轉하고 만물을 위육育育했네. 청신淸愼해 남의 뒤에 서고 은화한 가운데 광학弘學하다. 사조四朝의 정승이요, 일대一代의 주석柱石(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리)이로다.”(세종실록에서)

세종 17년, 문경공의 부음하음을 들은 세종 임금은 사흘 동안 조회朝會를 열지 않았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사흘 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던 일은 왕조시대에서 지금까지 이례적異例의이었다. 한글을 창제하고 찬란한 세종 시대를 열게 했던 명신名臣을 잃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세종은 문경文景이란 시호諡號를 내리는 한편으로는 영의정 황희 등 대신들과 함께 빈소를 찾고 후한 부의轉議를 내려 장례를 치르게 했다.

문경공은 세종 임금이 내린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삼성리 광약산光岳山 삼정승三政丞 묘역에 안장 됐다. (세종실록) 초배初配이신 정경부인 안동 김씨 김득우金得雨 따님과 재배再配이신 정경부인 여산 송씨宋氏 군사郡事 전의 따님은 합폿(合窆: 합장)됐다. 그러나 문경공의 묘소는 오랜 세월 실적이 되었다가 정조 9년(1785) 지석(誌石, 문헌 사람의 이름과 생몰연대, 행장, 위치 등을 새긴 돌)을 발견함으로써 확인됐다.

후손들이 단종 사회에 연루되어서 안동, 김천, 예천, 강원도 원주 등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묘소가 있었던 경기도 광주와 멀어진 것이 실전의 원인 됐다.

문경공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장수를 했으며 형제(7남 3녀)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수壽를 누리신 것으로 전해진다.

명상 황희가 남긴 방촌실기防村實記에 따르면 “문경공 선조는 방촌 황희, 경암敬庵 허조許樞와 더불어서 조선 전 기시대의 악률(惡律, 법령)을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고 만주 지역 야인野人 이민주李滿洲 등 수 백 가구를 조선으로 귀화시키고 입을 옷과 양식을 주어서 임금의 근심을 덜게 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2-1571)이 충북 영동 결성結城 객관客館에 걸린 문경공 선조의 글을 보자 그 자리에 오직이 못했다고 한다.

명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을 달치는 떨림 현상 때문이었다.

<君子忠君愛國之心군자충군우국지심/ 군자가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不忠不愛之間불충부유지간/ 마음을 한순간에도 잊은 바가 없구나>란 명시名詩를 남겼으나 문경공의 시詩도, 퇴계 이황의 찬贊도 전해지지 않는다.<조선상신시傳韓相臣史, 영가언행록永嘉言行錄> 퇴계의 고조모가 문경공과 형제여서 감회가 더 컸을 것이다.

문경공 선조는 아들 딸 8형제를 두셨다.

만이 병사兵使 맹정孟貞과 군사郡守 맹도孟度, 소윤少尹 맹정孟貞, 문과정랑文科正郎을 지내신 칠림七臨이 있으며 네 딸은 문신文臣 이지성李之誠과 이조정랑吏曹正郎 배소裴素, 문신 신자경申自敬, 현감縣監 송수겸宋守謙에게 출가하셨다. 문경공으로 인해 3대가 조선 세종으로부터 추증追贈을 받는 영광이 보태졌다.

선고先考이신 회정공回正公은 아드님과 같은 직급인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좌의정에, 문경공이란 시호가 내려졌으며 조부祖父(諱 諱 翁) 역시 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좌참찬左參贊에 시호는 회경공回敬公이다.

중조부曾祖父(諱 諱 亮)는 이조참판에 영가永嘉君으로 추봉되셨다.

문경공은 만년에 안동부安東府 풍산상리와 한양을 오가면서 살았다는 기록이 영가지永嘉誌에 있다.

문경공 후손들 역시 문종文宗의 동서이시자 단종端宗의 이모부이신 죽림공竹林公 형제가 중조부從祖父이신 문경공에게 수학한 사실이 단종 복위 실패 이후에 밝혀져 김천 조마면 잠암(장바위)과 영양 강원도 원주 등지로 피해 살게 됐다. (자료출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안동권씨좌문공파문경공세계보 安東權氏左尹公派文景公世系譜, 영가언행록永嘉言行錄, 묘갈명墓誌銘 등)

## 권해옥 회장 권영재 족친 격려 방문

권해옥 회장은 동대문구 전농 1동에 거주하는 권영재(동정공파 34세) 족친을 10월 14일(월) 13시 30분에 격려차 방문했다. 지난 10월 8일 권영재 족친이 대중회에 참가 전해 줄 것이 있으니 방문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자 10월 11일(금) 권영재 회장 권해옥 회장이 서둘러 집을 찾아 나섰다.



이때 권영재 족친은 대중회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불 속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편집국장에게 건넸다. 현금 100만원이었다. 본보가 보도(2018.8.1자)한 바와 같이 족친은 부인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다. 거기에 몸까지 편찮아서 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큰돈을 대중회에 기부할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다니 대중회에서 시조 묘소 성역화와 안동권문의 발전을 위해 너무 애쓰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에 작지만 성역화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현성금으로 내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보고 받은 권해옥 회장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한푼 두푼 모은 돈을 능동 성역화 사업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태려는 그 마음은 백번 천번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그 돈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하며 격려 방문을 하게 된 것이다. 권해옥 회장은 권영재 족친에게 시조와 선조를 위한 송조정신과 그 마음은 너무 고맙다. 족친의 그 뜨거

운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100만 족친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정말 고맙다. 그런 의미에서 100만원은 다 받을 수 없고 족친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 중 10만원만 평생 중보대금으로 받기로 하겠다. 부디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미 전농 1동 통장도 함께 했다. 권영미 통장은 권영재 족친이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늘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고 족친이다. 권영미 통장은 권해옥 회장에게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권영재 족친의 민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며 대중회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중회에서는 권영미 통장의 요청에 따라 향후 권영재 족친의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훈훈한 미담이 아닐 수 없다. 편집국장 권영환

## 울산중친회 시조묘소 참배와 선조유적지 탐방

울산중친회는 지난 10월 20일 권옥술 울산중친회장을 비롯한 울산지역 각 친목회 10개 단체 회원 90여명을 모시고 버스 2대로 안동지역 시조묘소 참배와 선조유적지 탐방을 다녀왔다.



행사 전반에 걸쳐 모든 진행은 권영환 중친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출정식을 시작으로 중친회장을 비롯한 각 친목회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권옥술 중친회장은 인사말에서 선조유적지를 견학하면서 선조들의 일과 혼이 담긴 유적지를 둘러보고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들을 되새겨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맑은 공기와 좋은 경치를 마음에 듦뻍 담아 가시길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울산중친회가 더욱더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권명달 울산청장년회장은 인사말에서 2021년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울산 개최에 대한 설명과 울산중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친목회장의 인사말과 중친들의 덕담이 있었다.

처음 행선지인 능동재사(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에 도착하여 “시조묘소와 아시조묘

소”를 참배하고 음복 후 점심식사를 한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봉정사”를 탐방하였다. 다음으로 “권위”(조선전기 문신, 본관은 안동, 호는 옥봉, 권사번의 증손, 북야공 22세손)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709년(숙종 35) 지방유림의 공의로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도계서원”(안동시 북후면 도장길 76-5)을 탐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우당”(부정공파 권환의종택,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49호, 인조18년 1640년 건립, 안동시 임하면 임하중로길 45)을 탐방하였다.

이번 선조유적지 탐방을 계기로 선조님들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고 안동권씨로서 자부심을 가졌으며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어서 후손들에게 산 교육장이 되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총무부장 권영묵

# 가 나 기 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 세무법인 확인

대표세무사: 권혁창(權赫昶) (010-3680-5057) 북야공파36대

###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혜

###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물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민섭